

가정예배 안내서

6

1995

충현의 만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표지 사진은 지난 5월6일 95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실시한 그림그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한 초등5부 이성은 어린이의 그림입니다.

6

1995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호세아, 요엘, 아모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예수사랑 큰잔치의 아름다운 결실과 결단한 영혼들의 계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5년 6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서 론

호 세아란 말은 '구원'이란 뜻을 가진 말이다. 그는 웃시아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이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참으로 이상한 사랑이야기이다. 그러나 알고보면 사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치유자요, 회복자요, 그리고 하늘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요 엘서 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데 본래 요엘이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란 뜻이다. 요엘서의 교훈은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면 소망의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날이 될 것이란 메시지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 모스는 웃시아와 여로보암 II세 때를 전후해서 활동한 선지자로 그는 뿔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였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호세아서와는 달리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한 면, 즉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다. 곧 아모스서의 주제를 집어내자면 국가적인 죄악이 국가적인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오늘의 우리 사회가 상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비교해보며 이 나라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목) 하나님의 사랑

찬송 / 411장 본문 / 호 1:1-11

『.....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1:2)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다는 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명령을 선지자에게 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궁핍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시 85:10)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후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거니와 사실은 벌써 호세아서에 그것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고멜을 사랑해야 하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로 냉혹한 '아픔의 사랑'이었지 따뜻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야 할 호세아 선지자 자신이 그 아픔을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당신의 사랑을 전달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 사랑을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하여 실천해봅시다.

▶ 기도 /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2:2)

본문은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음행 속에 빠져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음란을 제하라고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쟁론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즉 교회를 향하여 쟁론하되 그들의 죄악된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러한 요청을 하셨다는 것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향해 계속해서 악의 세력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고 합니다.

어머니와 쟁론하여야 할 자녀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괴로움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 참 자녀들이라면 어머니에게 회개의 강한 탄원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음란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면 우리 백성은 별거벗기고, 광야같이 마른 땅에서 목말라 죽게 될 것이며, 자녀까지도 궁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나이다" (시 49:1)

▶ 기도 / 먼저 믿은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태신자들에게도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 음란을 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주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찬송 / 168장 본문 / 호 2:14-23

『그 날에는 ……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2:18)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입에서 바알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날에 모든 재앙을 제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땅에서는 활과 칼을 영원히 꺾어버리고 전쟁이 다시 없도록 하여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사 11:6-9). 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렘 23:6), 또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레 26:3-6).

이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들리라’ 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고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헌신의 생활을 함으로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복된 자가 됩시다.

▶ 기도 / 헌신의 삶으로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주시되 특히 예수사랑 큰잔치 기간에 선포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폭발적인 권능을 덧입히시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목회 비전들이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3:4,5)

참 효자라면 부모를 멸시하거나 경홀히 하지 않고 도리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는 믿음이란 말대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요, 둘째는 범죄함을 두려워하는 자요, 셋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장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주십니다.

▶ 기도 /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충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며 태신자를 위해 더욱 큰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4:1)

본문에서 호세아의 신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선물로 준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을 더럽히고 또 여호와와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계약파기에 해당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목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것입니다. 진실과 인애는 계약관계의 신실성으로 하나님과 이웃간의 상호신뢰성과 의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계시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형성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상호신뢰가 사라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2절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공간에 살인, 강도, 간음, 강간, 저주의 5대 범죄가 메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범죄는 십계명에 저촉되는 것이며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계약공동체이며, 이 공동체는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이 공동체의 생명을 파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함과 인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됩시다.

▶ 기도 / 진실함과 인애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예수사랑 전도집회를 축복하시며, 교역자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능력 있는 추수꾼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4:15)

우리는 주인에게 이끌려 가는 양순한 소를 봅니다. 그러나 가끔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인과 힘겨루기를 하는 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채찍만 맞고 힘만 허비하고 주인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광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도 있어 왔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고개를 쳐들고 반항하는 암소를 보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그를 따라가려 하지 않을 때 완강한 암소와 같게 됩니다. 우리의 탐욕을 제한받기 싫어하고 우리의 이성과 본능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막대기를 원망할 때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버려두라' 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시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계속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버려두라' 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떠한 형벌보다도 가혹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이처럼 버려진 에브라임의 비참한 상태는 오늘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의 교정할 수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6월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쓰라린 동족상쟁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는 주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노력하여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꼭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 기도 / 현충일을 맞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든 완악함과 불신앙과 고집을 버리게 하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수사랑 전도집회를 축복하시며, 모든 당회원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 (5:14)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비유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큰 고생 끝에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들을 발견하고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여 아들의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참아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기에는 너무 늦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경에 처해 있던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직시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들이 설사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힘에 도취되어 교만하였고, 마음에 없는 제물로 하나님을 괴롭혔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정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대의 공통되는 특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하고 미룰 수 없는 최급선무입니다.

▶ 기도 / 오늘 밤 8시부터 시작되는 예수사랑 전도집회의 첫번째 날을 축복하시사 많은 태신자들이 참석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의 직원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6:3)

희망은 최후의 자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실패하여 없어져도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삶에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는가 하면 밝은 빛이 비추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심할수록 치유와 회복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보석은 어두운 광산에서 캐내어 뜨거운 불 속에서 정련되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크나큰 고통으로 여겨지지만 그 고통을 통과한 후에는 보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상처와 병의 위중함을 깨달은 에브라임과 유다는 앓수르 왕 야렘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그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격려했던 희망의 말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받았던 상처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새롭게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권능의 새벽빛으로, 또 쏟아부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신실한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아침의 푸른 희망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예수사랑 전도집회 두번째 날을 축복하시사 초청된 모든 태산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승리하게 하소서.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충만히 뵈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⁷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7:7)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다 완악해진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날에 그들은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의 역사에 너무도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신정국가의 수반으로 하나님께 엄숙한 맹세와 감사로 나라의 장래를 의뢰했어야 했건만, 오히려 신하들과 술에 만취되어 갖은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말기 정권은 결코 그 날이 길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쇠하여 가는 모습이 너무 신랄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궜진 화덕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늘 악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고 추한 탐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적 태도는 불완전하고 미지근하였습니다.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들려지는 경고나 주의를 요구하는 징조를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무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돌아오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천부께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을줄 안다면 그는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 기도 / 오늘, 예수사랑 전도집회의 마지막 날을 축복하시사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모든 태신자들이 나와 하나님의 복된 초청에 응답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으로 삶 또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8:5)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르며 덮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와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아담이 창조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며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주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가 되었을 때 인간은 그 명령을 순조롭게 이루어나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노아시대에 이르러는 지구상에 인간의 비뚤어진 모습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하나님께서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시대에도 그런 모습인 것을 호세이는 지적하였습니다. 본문의 5절은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가 너를 발로 차버렸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었던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에게 점점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여로보암의 송아지를 숭배한 것은 진실한 믿음을 저버리고 애굽의 속되고 관능적인 문화에 동화되어버린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결국 타락하고 무기력하게 되어 타민족의 침략에 저항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앓수르나 애굽에 공물을 보내며 외교적으로도 힘써 봤으나 쇠잔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문화나 사회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 기도 / 오늘 우리를 두르고 있는 세상 문화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되어 살게 하여주소서. 예수사랑 전도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태신자들이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예수사랑 큰잔치에 다 참석하여 재결신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9:7)

본문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방의 포로가 되리라는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의인에게 축복하시는 동시에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추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또는 미친 자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징벌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 선한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갈 6:7). 이스라엘은 그런 점에서 실패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 기도 / 이스라엘의 잘못된 역사를 답습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주소서. 오늘 95 예수사랑 큰잔치를 축복하시고 특히 강사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더 하사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모든 태신자들이 재결신하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9:17)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므로 결국 많은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나그네가 거친 광야에서 포도와 무화과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기쁨과 축복의 대상으로 대하셨습니다(10절).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과 같이 저희들도 가증스러워졌다고 한탄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출산의 축복을 상실하는 심판을 받고 나아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족속이든 자손이 번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불의한 족속을 용납치 않으시겠다는 단호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저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모두 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함이 마땅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과 함께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체험케 하시면서 기꺼이 복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 기도 / 역사 속에 나타난 불순종의 결과들을 교훈삼아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각 교구마다 주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 (10:2)

본문은 이스라엘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두 마음을 품어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성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랑을 계속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항상 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고 또 참으시는 인내의 기록이 구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랑한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어 영적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중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하여 그 사랑을 거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8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곧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도 마땅치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요즘 내 생활 가운데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유혹거리는 없는지요. 참 자유함과 기쁨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갖고 사랑과 순종을 계속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늘 한 마음으로 순전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성령 충만하여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11:8)

본문은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럼에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부도덕적인 행음과 같은 죄악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늘 정결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죄악을 분명히 지적하셔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축복해줍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 기도 /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깨달아 알고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부와 에바다부원들에게 더욱 크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12:6)

본문은 이스라엘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1-6절)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죄악들을 다시 한 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7-14절).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속이고 과욕을 부렸지만 나중에는 천사와 씨름하기도 하고, 또한 벰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이스라엘도 지금은 잘못하고 있지만 야곱이 돌아온 것처럼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으면 즉시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지 이웃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길로 가던 그곳에서 돌아서면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없습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책임임을 잊지 말고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 기도 /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서 전 세계의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13:4)

호세아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 1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의 단과 벰엘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통하여 국가가 부강해지고 풍족하게 되자, 그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어, 자신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광야 길에서 그들을 주목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자, 표범, 곰, 들짐승이 찢는 것같이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려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주려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왕을 세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고, 또 계속하여 그 왕들을 폐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는 이미 인봉되었으며, 마지막에 심판받기 위해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주께 나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가 풍족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이리안자야 지역 의료선교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여호와와 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14:9)

본문은 호세아서의 결론으로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해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그들의 불의를 사함받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들이 의지했던 앓수르, 애굽,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고아같이 되었던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호세아는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온 그들의 패역함을 고치시고 즐거이 그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말없이 내려 모든 초목에 생명력을 주는 이슬과 같이 그들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에브라임은 우상을 잊어버리게 되어, 하나님을 인해 열매맺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지혜있는 자같이 깨닫고 이해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이라야 깨달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한 눈과 지혜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받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교회의 성장과 거정에 충만한 평강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1:1)

요엘서의 저자는 브두엘(‘하나님께 설득당한’이란 뜻임)의 아들인 요엘인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그의 아버지 브두엘의 신앙고백이 담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은 유다에 임한 전무후무한 메뚜기와 한발, 그리고 큰 불의 3대 대재앙을 통하여 당시의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발견하였고, 동시에 미래에 있을 여호와와 날의 대심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요엘은 이 재앙에 대해 회개하는 것만이 유다의 살길임을 선포하였는데, 장차 회개치 않는 자는 멸망 당하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성령을 받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요엘은 4종류의 메뚜기(팻종이, 메뚜기, 늦, 황충)가 모든 곡식을 완전히 먹어치운 대재앙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재앙으로서, 자손대대로 전해져야 할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메뚜기떼를 한 민족의 군대가 약탈하는 모습으로 표현 했는데, 이는 후에 있을 앗수르의 공격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이러한 전무후무한 대재앙을 보면서 그 안에서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대심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에 그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도 / 우리 가정과 주변에서 많은 환난이 있을 때에,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사역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종합선교관 건립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이다.』(1:14)

요엘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으며, 본문에서 이 재앙에 대하여 유다 거민에게 울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거민들에게 마치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것과 같이 애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매우 심하여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거리가 떨어질 정도였으며, 밭과 토지가 마르고 황폐하여 모든 산물이 생산을 그쳤으므로 농부들이 부끄러워 할 정도였으며, 인간에게 있는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엘은 먼저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애곡하라고 외치게 되었으며, 그 후에 장로들과 온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요엘은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재앙 속에서 앞으로 올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엘이 주위를 보니 식물이 썩어지고, 기쁨이 사라졌으며, 종자 씨가 썩고, 창고는 텅텅 비었으며, 풀과 시내가 말라 모든 짐승이 피곤해 하고, 들짐승들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거민은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영적인 기아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은혜가 안되거나, 심령이 메마르고, 경제력이 동이나고, 가족들이 피곤해 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앞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 기도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충만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소서. 교통사고를 당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성지연구소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웁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2:11)

요엘은 현재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갉아먹는 모습 속에서, 회개치 않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낼 다른 민족의 군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엘은 이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 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유다 거민들에게 나팔을 불어 이러한 심판의 위협을 알리고, 영적 무관심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여 그 심판을 보고 떨게 하라고 외칩니다. 요엘은 이 날이 어둡고 뻘뻘한 구름이 끼인 날이며,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수한 메뚜기가 하늘을 가리고 산 전체를 덮은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장차 유다를 치러올 앗수르 군대를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요엘은 이 일로 인해 유다가 황폐해지고 메뚜기가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갉아먹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보내어 유다의 성을 공격하게 할 때도 아무도 그것을 제어하거나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엘의 심판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영적으로 잠든 유다 거민들을 각성시켜 회개케 함으로, 심판을 피하고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판이 장차 있을 것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과 수리남 사회 안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와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 (2:12)

자신이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먼 곳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너무도 지치고 피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사랑의 모습을 펼쳐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옷만 찢는 외적인 모양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성회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히 10:25)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 모두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거룩한 성회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홍콩을 기지로 한 대륙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 (2:23)

본문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시는 구체적인 은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참되신 긍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는 그냥 아무때나 아무렇게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만큼을 필요 적절하게 공급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영혼 중심에 넉넉히 공급된다는 보다 영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나. 인생의 제일된 목적,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 기도 / 언제 어디서나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김영대 선교사(수단)와 그 가족이 사역지에 잘 정착고 언어 실력의 진보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 (3:1)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창조와 부활 그리고 재림이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재림이라는 말은 종종 심판이라는 말과 바꾸어 생각되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벌을 주시지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두려움과 종말의 시간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의로운 자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신앙 아나에서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심판 때에 두려움없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의료선교사역을 통해 일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 (3:17)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만일 우리가 현재적인 삶에만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고전 15:19).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자신들의 범죄함을 인하여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빠져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며 핍박하던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본문에는 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며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풍성한 축복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죄를 극복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영광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동시에 앞으로 완성될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한인교회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 (1:2)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통한 여호와와의 징계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의 과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최악된 이방 국가들의 압제에 시달리면서도 완전히 돌아 서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몇몇 이방 국가들의 최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쟁에서의 잔혹함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인신매매입니다. 셋째로는 엄청난 중오심의 표출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려움이 심각할 때에 선지자 아모스는 자신의 동포들을 향하여 지극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고한 믿음과 철저한 정의감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에 오염되어 자신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던 그 당시에 아모스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양분된 지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갔고 이제는 서로의 의식과 생활 방법이 큰 차이를 드러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통일을 위한 준비가 성실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에게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2:4)

아모스는 수리아로부터 시작한 심판의 소용돌이를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을 거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로 몰아잡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들을 늘 괴롭히고 적대관계에 있는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였을 때 기분이 매우 좋았을 것이며, 아모스 선지자의 인기도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심판의 경고가 이방 민족들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아모스의 경고 방법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하던 나단 선지자의 방법과 유사합니다. 나단은 밋세바 사건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 왕에게 나아가 먼저 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단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격노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의 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의감도 있고, 남의 심판이 선언될 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나단은 다윗을 향해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회의 악을 이야기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실 때 속이 후련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심을 알고 늘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회개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 기도 / 오늘도 남의 잘못을 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고은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맞사이족 전도를 통해 검은 대륙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3:2)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족속들이 있으나 내가 아는 족속은 너희들 뿐이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씀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 알듯이,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약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교회입니다. ‘거룩한 자의 회중’(시 89:7)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에는 늘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대도 큼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구주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당시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보는 세상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과 겸비와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보다 큰 요란과 학대가 예루살렘 성중에 있어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이 타락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남용하는 너희를 너희 범죄상을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교회와 신자가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흠족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됩시다.

▶ 기도 /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생업을 통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 (4:12)

성경은 간혹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 ‘저 여우’ (눅 13:32)라고 하셨고,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켜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들(막 3:17)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별명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들의 특징은 돈만 알고 질서를 모르며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가리지 않고 착취하여 인륜을 저버립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하루 종일 취해 있기를 원하고 그 수종드는 일을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남편들에게 시킵니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것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토였습니다. 이처럼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6, 8, 9, 10, 11).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리엿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실 것 같습니까? 바나바(권위자)라 하실 것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진노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처럼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실 것입니까?

▶ 기도 /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립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²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5:4)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경고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던져지고 엎드러지는데 1000명의 도시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의 도시에는 10명만 남게 된다고 하십니다. 옛날 로마 군대는 끈질기게 항쟁하는 도시를 점령하면 사람들을 한 줄로 세우고 그 가운데 열번째 사람을 처형하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당할 어려움은 열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열명 가운데 한 사람만 생존하는 처절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란에서도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 부르짖으십니다. 나에게로 오면 그 엄청난 학살의 현장을 피할 수 있다. 비행기의 공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공습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공호로 숨습니다. 방공호가 없으면 담벼락 밑이라도 머리를 들이 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경고없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라도 심판을 피하라고, 나를 찾아 나에게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심판을 면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살아 계신 분이심을 깨닫고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5:14)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하고 엄숙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날의 예배가 가장 엄숙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할 뿐 아니라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고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거들며 보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사는 그 자체로 충족한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면서 또한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제물로 예배하겠다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울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삼상 15:22,23). 우리의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생활 전반에 걸쳐 순종하는 치료법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 기도 / 온 일주일을 주일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게 하소서. 6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7월에도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4 과

교회의 정치란 무엇인가

말 씀 / 출애굽기 17장 8-16절

찬 송 / 246 장

요 점 / 장로들과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일꾼들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가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한 교회의 정치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 정치 하면 “교회에도 정치가 있어야 하느냐?” 고 반문합니다.

교회 정치의 여러 형태

교회의 정치란 주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정치란 세상 정치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정치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교황을 주축으로 하는 교황 정치외에도 감독 정치, 장로 정치, 회중 정치, 등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교회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의 정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무교회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장로 정치를 올바르게 시행하려면

여기서는 한국 교회의 정치 구조인 장로 정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장로 정치는 교회의 모든 기본 권리가 교인들에게 있다고 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대의정치 형태와 같은 가장 바람직한 정치 제도입니다.

그런데 장로와 목사 사이가 원활해서 잘 되어가는 교회도 있지만 그들 사이에 갈등이 많은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서로가 아집을 가지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욕심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될 때 이러한 갈등은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장로 정치를 교인들의 의사에 따라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3분의 2가 여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 장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실행할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 장로제도를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의 장로제도는 여성도들뿐 아니라 남성도의 경우에도 젊은 층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는 그냥 두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나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로들이 교인들의 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과 목사들은 피차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함께 들어주며 협력했듯이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교회에 정치가 필요한 것은 ()의 일을 ()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2. 교회의 정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무교회주의는 ()입니다.
3. 교회 정치의 가장 좋은 모습은 모세의 손을 들어 주는 ()과 ()의 협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시점에서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방침인 예수사랑 큰잔치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태신자를 모시고 올 만반의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4. 교회의 정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께 영광이 되고 ()는 질서가 잡히고, ()에게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5. 우리 모든 **충현의** 식구들도 며칠 남지 않은 하나님의 사업인 “예수 사랑 큰잔치”를 위해 질서있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총진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제 35 과

교회의 권세란 무엇인가

말씀 / 디모데전서 1장 3,4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사도행전 4장 32절

찬송 / 245장

요점 / 오늘날 교회들이 사회에 기독교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권세의 상실 때문인데, 우리는 교회의 권세를 진실로 회복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란 점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군대나 총이나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에서 오해하고 있는 대로 주님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넓게는 교회의 세 가지 권세, 즉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황에게 전권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권세의 성질은 무엇보다도 신령성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권능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셨고, 지금도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교회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부패하거나 그 신령성을 잃으면 당연히 상실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집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른바

권세의 상실 때문인데, 바로 도덕성과 영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의 시행

교회의 권세는 그 직원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행해집니다.

여기서 교회의 직원이란 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 등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령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권위로 임명되었으며 주 안에서 그 영적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 가지 권세

교회의 권세는 먼저 그 교리권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전달하며 신조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작성되고, 훈련을 위해 신학적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권세는 치리권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교리권이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의 반영이라면 치리권은 그리스도의 왕직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에는 이 치리권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산 교회의 특징이 바로 치리권인데, 이것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치리하면 다른 교회에서 얼마 안가서 집사로, 심지어 장로로도 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치리를

두려워 합니다.

끝으로 교회의 권세는 사역권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적, 영적 사역권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 낙심자와 병든 자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고쳐주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야말로 이 잃어가고 있는 권세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일을 능력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교회의 권세 중에서 교리권이란, 교회가 ()을 증거하고 보호하며, ()을 작성하고 ()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2. 교회의 권세 중에서 치리권이란, 교회의 ()를 방지하고 교회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 교회의 권세 중에서 사역권이란, 교회가 ()를 구제하고 병든 자와 낙심자를 ()와 ()으로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4. 우리 총현교회는 말씀을 높이는 교회, 기록을 유지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로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있을 초청전도집회와 주일에 있을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제 36 과

은혜의 수단이란 무엇인가

말 씀 / 사도행전 20장 32절, 마태복음 28장 19,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26절

찬 송 / 209장 284장

요 점 /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번째는 성례를 통해서 임하는 바, 큰 은혜를 받아누리도록 합니다.

교회론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은혜받는 비결이 무엇이나?” 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성도들만큼 ‘은혜’ 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목사에게 인사를 할 때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개념이나 비결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은혜란 무엇인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설교가 감명 깊었을 때 “은혜받았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란 죄인인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중생케 하시며 하나

님의 자녀로 성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말합니다.

은혜와 은총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에는 특별 은총을 흔히 말합니다.

은혜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구원과 연관이 된다는 것과, 우리의 공로나 선행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공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임합니다. 첫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번째는 성례를 통해서 임합니다.

첫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1:1-14)입니다.

둘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셋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형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다른 하나는 복음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율법이 먼저 왔고, 복음이 나중에 왔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선행의 조건을 제시하지만 복음은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고, 둘째는 죄를 깨닫게 하며,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에 목사의 인격체를 통해서 적용해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비록 인간의 말이란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은혜의 수단은 성례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일곱 가지의 성례를 말하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식만을 성례로 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이 두 가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은혜받기를 사모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성례에 빠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2.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바로 ()을 통해서인데, ()는 말씀 자체이시고, ()은 기록된 말씀이고, ()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3. 또 우리는 ()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와 ()인 성례는 ()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4. 우리는 함께 모여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제 37 과

개인적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말 씀 / 디모데후서 4장 7,8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찬 송 / 545장, 231장

요 점 / 성도들은 죽음에 처했을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으로의 진입이요 이민인 것을 깨닫고 서로 위로하며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과거에 관한 구원론뿐 아니라 미래에 관한 종말론도 나옵니다. 종말론에는 개인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은 개인적 종말론과 역사적 종말론으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개인적 종말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세 가지 죽음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영혼이 하나님과 떠나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떠나는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적 죽음을 가진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적 죽음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5, 17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인간의 죽음의 원인과 의미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자범죄를 범하지 않은 유아라 해도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

그러면 성도가 겪는 죽음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의 죽음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성도의 죽음은 징계와 연단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너무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는 이별의 아쉬움과 괴로움은 있지만, 구세군에서 말하는 대로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으로의 진급인 것입니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왜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까?

그러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성도들은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또 죽음을 무서워해서도 안됩니다. 천국은 죽지 않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이 임할 때 마치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들어갈 때처럼 부활과 영생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서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 ① 영혼이 하나님과 떠나는 () 죽음
- ②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떠나는 () 죽음
- ③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는 () 죽음

2. 성도의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 이요, () 입니다.

3.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 ① 매일매일을 () 살아야 하고
- ② 현실에 너무 () 을 두지 말아야 하고
- ③ 죽음을 () 말아야 합니다.

4. 주신 사명(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을 천국갈 때까지 잘 감당하여 열매 맺는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 38 과

영생이란 무엇인가

말 씀 / 요한복음 17장 1-5절

기 도 / 506장

요 점 / 영원한 형벌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축복하셨습니다. 더욱더 풍성
한 생명에 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고난당하는 상태로 영원히 산
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이란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생이란 존재의 끝없는 지속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영생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 구절을

영생의 조건적 진술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영생의 정의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 앎이나 세상적 앎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앎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간 존재의 영원한 충만과 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영생을 부인합니다. 저들은 영혼을 두뇌활동의 소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후손을 통한 종족의 계속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무신론적 견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에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남아 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 10:28; 눅 23:43; 요 11:25). 무엇보다도 중요한 증거는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요 11:25,26). 그뿐 아니라 내세에 대한 증거도 많습니다(마 13:43; 고전 15:49).

따라서 영생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구원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 나라에 간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이 우리가 믿는 목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영생에 대한 정의는 요한복음 ()장 ()절에 나옵니다.
2. 영생이란 ()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3.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는 말과도 같고, ()는 말과도 같습니다.
4. 영생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인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 이
성경봉독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 이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